

중고차 시장 대수술...‘깜깜이 거래’ 막는다

차량 광고부터 최종 가격 공개...하자 보증 책임 확대 추가 비용·성능기록 부실 개선...안심 거래 기반 마련

정부가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부실한 차량 성능 점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 개선에 나선다.

차량 광고 단계부터 모든 비용을 공개하고,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2025년 기준 수출도 88만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신차 구매 부담이 큰 청년층과 서민층의 이동 수단과 밀접한 시장이지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품 등에 차량을 광고할 경우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차량 가격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500만원 예산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계약 과정에서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제시됐다.

차량 성능·상태 정보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중고차 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사고 이력, 엔진·미션 하자 누락 등 성능기록 부실과 관련된 문제로 조사됐다.

판매자의 책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 중심으로 하자 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구매 이후 발생하는 차량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가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이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도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9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윤석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미래 산업 인재 육성에 주력

전남광주 혁신기술 워크숍서 생성형 AI 실무교육 역량 높여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이 전남광주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은 최근 나주 듀플렉스호텔에서 ‘전남광주 미래 에너지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광주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술 혁신과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에너지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이 전남광주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로 떠오른 가운데 마련된 생성형 AI 실무 교육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교육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방안과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문서 작성 자동화, 산업현장 적용 사례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과 협력 방안 토론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들은 공동 연구와 기술사업화,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지역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성환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현대차 ‘디 올 뉴 아반떼’, 계약 첫날 1만대 돌파 역대 아반떼 중 최고 인기몰이...전방위 상품성 강화

현대차는 대표 준중형 세단 ‘디 올 뉴 아반떼’가 계약 개시 첫날 총 1만1094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출시된 7세대 아반떼의 계약 첫날 실적인 1만58대를 넘어선 역대 아반떼 최고 기록이다.

현대 측은 차급을 뛰어넘는 상품성으로 돌아온 8세대 아반떼의 우수한 경쟁력을 증명한 결과로 평가했다.

또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SUV 선호 트렌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통 3박스 형태의 내연기관 세단이 계약 개시 단 하루 만에 1만대 이상의 계약을 달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디 올 뉴 아반떼’의 초기 흥행은 전 세계 미디어와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파격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간성, 안전성, 주행 성능, 편의 및 디지털 사양 등 전반적인 상품성을 차급 이상으로 끌어올린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립별 선택 비중은 최상위 트립인 인스퍼레이션이 52%로 과반을 차지하고 기본 트립인 모던과 중간 트립인 프리미엄은 각각 24%를 기록했으며, 인스퍼레이션의 높은 선택 비중은 준중형 차급에서도 첨단 사양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호하는 고객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프리미엄 트림부터 기본 적용)’와 ‘전자식 변속 레버 P단 긴급제동’을 비롯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 다양한 최신 사양이 기본 적용돼 만족도 높은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

또 기존 아반떼에서 4%에 그쳤던 기본 트립 선택 비중이 24%로 높아진 것은 대형 디스플레이 기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대폭 기반화한 결과로 분석되며,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 폭도 한층 넓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플레오스 커넥트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본 적용에 따른 디지털 경험 혁신이 고객 관심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며, 오픈형 앱 마켓을 통해 차량 내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파워트레인별로는 가솔린 모델의 높은 인기가 이어진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택 비율은 27.5%를 기록하며 기존 아반떼의 14.8%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사업개요
-발전소명 : 제이컴퍼니태양광발전소
-위치 : 전남광주통합복합단지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산 39.39-3.39-8.39-9
-면적 : 102,842㎡
2. 태양광발전설비의 내용
-설비용량:2899.92kw
-사업개시일:2028.01
-운행기간:2028.01~2048.01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기간:공고일로부터7일간
-방법: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팩스,우편등으로 통해 제출
4. 의견제출 장소 및 연락처
-주소: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527
-연락처:062-381-5040
-팩스:062-381-5041
-이메일:neotechsolar@naver.com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사업개요
-발전소명 : 한울그린에너지태양광발전소
-위치 : 전남광주통합복합단지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68-1, 64-63
-면적 : 38,755.1㎡
2. 태양광발전설비의 내용
-설비용량:2899.92kw
-사업개시일:2028.01
-운행기간:2028.01~2048.01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기간:공고일로부터7일간
-방법: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팩스,우편등으로 통해 제출
4. 의견제출 장소 및 연락처
-주소: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527
-연락처:062-381-5040
-팩스:062-381-5041
-이메일:neotechsolar@naver.com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구단2130 업무방해 등

피고인 김재훈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7월 24일

판사 유형중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목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